

2000년대 전문직 드라마의 특징과 발전 양상

Specialized Job Drama's Traits and Aspects of Development in 2000's

이원

인천가톨릭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Won Lee(wonkr@iccu.ac.kr)

요약

2000년대 후반기에 지상파 방송은 기존 드라마 소재의 진부함을 극복하고 전문직을 선호하는 사회문화적 현상을 반영하는 전문직 드라마를 대거 편성하였다. 일부 전문직 드라마는 좋은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마니아층을 형성할 만큼 성공하였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청률은 낮은 편이며 폭넓은 시청층을 겨냥하는데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전문직 드라마의 특성은 우선 매우 다양한 전문직 소재를 다루고 있고 직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매우 세부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또 전문직 소재는 전문직업의 삶과 성공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의 창작에 활용되면서, 기존의 멜로 중심 서사구조에서 직업 중심의 서사구조로 유인하는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사구조의 특징과 맞물려 전문직 드라마만의 고유한 캐릭터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 중심어 : | 전문직 드라마 | 드라마 소재 | 서사구조 | 캐릭터 |

Abstract

The terrestrial television broadcasting has increased the number of the specialized job drama in the programming in 2000's, for overcoming the limit of the materials and reflecting the new sociocultural phenomenon valuing the specialized job. This drama benefits from good audience and huge fans, while the low average rate of audience shows the limit of competitiveness of this new genre. The text analysis clarifies three traits of the specialized job drama. At first, this genre is characterized by the variety of materials and the attempt of realistic description. Then, its narrative structure is organized so as to develop a story based rather on the success of career than on the relation of love. Finally, its last trait lives in the character of the heroes which is a creation based on the narrative structure.

■ keyword : | Specialized Job Drama | Drama Material | Narration Structure | Character |

I. 서론

1) 연구 배경과 연구 문제

1956년 첫 방송을 시작으로 오랜 기간 TV 드라마는 라디오 드라마, 연극, 영화, 문학 등에서 자양분을 얻어

점차 독자적인 장르로 발전하였다[1][2]. 2000년대에는 국내에서 높은 시청률을 올린 KBS의 「겨울연가」(2002)와 MBC의 「대장금」(2003)이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한류’ 열풍을 일으켰다. 드라마 한류는 수십 년 축적된 제작 노하우의 결과

* 이 연구는 2012년도 인천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접수번호 : #120928-002

접수일자 : 2012년 09월 28일

심사완료일 : 2012년 11월 12일

교신저자 : 이원, e-mail : wonkr@iccu.ac.kr

물이자 한국 드라마 발전과정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의미하는 사건이다. 1991년 외주제작 의무편성 정책이 실시된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외주제작사들은 「겨울연가」의 대성공 이후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3]. 이때부터 드라마는 단순히 시청률 기반 광고수익을 넘어서 해외 유통 창구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장르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게다가 디지털 매체의 발전은 국내에서도 IPTV, 온라인, 모바일 상에서 VOD와 다시보기 TV를 활성화시켰다.

새로운 환경에서 드라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드라마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게 되었다. 시장에서는 기존의 드라마 혹은 다른 채널의 드라마와는 차별화되는 독창적인 드라마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드라마도 시대의 사회문화적 산물으로써 진화하지 않을 수 없다[4]. 장르는 관습과 제도에 의해 반복과 유사성을 띠며 특정한 구조적 형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기술·산업적 발전과 수용자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5].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이 바로 2000년대에 와서 두드러진 발전 양상을 보여준 ‘전문직 드라마’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직 드라마를 독립적이고 고된 장르라기보다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시청경험의 변화 속에 드라마가 진화하면서 나타난 일종의 장르로 보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2000년대를 특징짓는 국내 드라마 장르의 큰 변화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첫째, 2000년대 전문직 드라마는 어떠한 양상으로 발전되어 왔는가? 둘째, 전문직 드라마의 주된 특징은 무엇인가?

2)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이 논문은 비평 혹은 칼럼에서 논의되긴 했으나 아직 학술 논문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국내 전문직 드라마의 특징과 발전 양상을 거시적 관점에서 양적, 질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따라서 연구 대상인 ‘전문직 드라마’의 개념은 아직 학문적으로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다. 그 전에 기존 문헌에서 전문직 드라마의 정의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직 드라마 개념

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멜로 드라마들이 사랑이야기를 하기 위해 전문직을 그럴 듯한 배경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장르 드라마’로 불린다[6]. 장르 드라마는 다변화된 매체 환경과 시청자 층의 분화에 따라 드라마에 다양성이 더욱 요구되며 너무 우려먹은 멜로드라마를 살려내기 위해 장르 실험이나 혼용을 시도하는 드라마를 말한다. 둘째, 젊은이들의 기호와 세태를 담은 연애 드라마를 ‘트렌디 드라마’라고 하는데 이 드라마가 15년 동안 한국 미니시리즈를 지배해왔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전문직 드라마가 등장했다. 특히 인터넷과 케이블 TV의 발전과 함께 미국 및 일본 드라마가 국내에 빠르게 전파된 상황이 전문직 드라마의 발전과 관련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7]. 셋째, 전문직 드라마는 ‘전문직’ 종사자를 통해 일반적으로 알기 어려운 전문직의 세계를 극적으로 구성한 드라마를 말한다[8]. 전문직의 세계를 다룬 드라마에는 일반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할만한 극적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문적인 지식을 무기로 특화되어 있는 전문직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인 경우가 많고, 전문직 드라마가 바로 이 같은 대중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리하면 전문직 드라마는 전문화된 사회에 살아가고 있고 전문직을 선망하는 현대인에게 전문직 종사자가 겪는 특별한 삶의 이야기를 극적으로 재구성한 일종의 드라마 장르로 볼 수 있다. 이 정의는 기존의 드라마 장르 분류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소재 중심의 분류 관습과 맥을 같이 한다[9]. 본 연구는 이러한 기본적 정의에서 출발하여 단순히 소재의 차별성으로 한정되지 않는 전문직 드라마의 특성과 발전 양상과 특성을 좀더 상세하게 밝혀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연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전문직 드라마의 발전과정의 변곡 지점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0~2010년 8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방송된 지상파 방송 3사의 전문직 소재 드라마를 전수조사하였다. 그 다음, 시기별로 편성의 양적 변화와 주요 전문직 드라마의 시청률 변화를 분석하였다. 둘째, 이 드라마의 고유한 내적 혹은 질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토마세프스키는 일련

의 작품들을 구분하기 위한 판단 근거로 내적인 동일성, 목적의 차이, 작품의 발생조건과 의의, 기존의 전통과의 차이를 들고 있다[10]. 이 연구는 질적인 면을 보기 위하여 초기 여러 분석 지표를 설정하여 표본 분석을 실시하였고, 전문직 드라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적인 동일성들 중에서 기존의 드라마 전통과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들을 추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이 분석 지표는 소재와 사실성, 서사구조, 캐릭터로 정리되었다.

II. 전문직 드라마의 발전 양상

1. 사회문화적 배경

사회문화적 환경과 시청경험이 변화하기 때문에 드라마가 시청자에게 재미와 감동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장르나 제작관습을 답습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작가와 연출가는 시청자들이 처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움직임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따르면 19세기에 대중소설은 사회의 변화를 주로 다루면서 등장인물들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신비한 모험에 관한 이야기로 독자의 관심을 끌었다. 전통, 규범, 도덕적 원칙, 행동 규칙 등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던 당시 사회 속에서 독자들은 신선하고 새로운 것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11]. 반면 산업사회에서는 빠른 사회적 변화, 새로운 행위양식의 등장, 전통의 해체 등으로 인해 오히려 반복에 기초한 이야기가 선호될 수 있다. 반복적인 서사구조의 작품은 수용자가 휴식을 취하고 긴장을 풀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드라마의 역사에서도 한국 사회가 역동적으로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가치나 이데올로기 색채가 진한 드라마에서 사회비판적 드라마 그리고 트렌디 드라마 등으로 변화되어 온 것을 볼 때[12],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가 드라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화와 권위주의의 약화, 여성의 지위상승과 남녀관계의 변화, 개인주의의 발전과 미디어 소비의 증가 등은 드라마의 내용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투영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전문직 드라마의 등장도 마찬가지로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초고속 경제 성장을 경험하였다. 또 높은 교육열은 병폐를 낳기도 하지만 한국 경제의 성장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전문 교육을 받은 고학력자가 늘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게 되는데, 의사와 변호사 같이 오래 전부터 전망의 대상이었던 직종 외에도, 요리사, 소믈리에, 배우, 기자, PD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직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전문직 드라마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사회 전반적으로 지적,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면서 전문직에 대한 어설픈 묘사로는 시청자에게 지적욕구 충족과 ‘동일시’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없으므로 작가와 연출가는 사전 취재에 더욱 공을 들이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오늘날 시청자의 시청경험도 과거에 비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드라마 텍스트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제작자는 특수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처한 시청자의 지식, 관심, 경험뿐만 아니라 영상매체에서의 시청경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13]. 오늘날 수사나 의학 소재의 미국 드라마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탄탄한 서사구조와 직업에 대한 섬세한 묘사와 지식은 시청자에게 중요한 소구점이다. 미국 전문직 드라마의 흥행은 국내 시청자들의 시청경험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국내 드라마도 그 영향에서 피할 수 없게 되었다[14].

2. 편성의 시기적 특성

전문직에 관한 드라마가 국내 방송에서 본격적으로 부상한 것은 2000년대 후반이다. 2000~2006년 기간에는 전문직 소재 드라마가 MBC와 SBS에서 매년 드물게나마 편성되었다. 하지만 이 드라마들의 대다수는 전문직이라는 새로운 소재로 신선함을 가미하였을 뿐 기존의 멜로 중심의 서사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은 이후 내적 특성에서 더 자세히 서술할 것이다.

편성에 있어서 양적으로 기존의 드라마 편성 트렌드와 확연히 구분되는 현상이 나타난 해는 2007년이다. 이 때부터 각 방송사가 본격적으로 전문직 드라마를 대거 편성하기 시작한다. MBC는 전문직 드라마 편성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 방송사로 이미 2005년부터 비중을 늘리면서 2007년 이후에는 편성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SBS는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균형적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KBS는 2008년 이후에 와서야 확연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전문직 드라마는 대부분 미니시리즈 포맷으로 제작되며 수·목에 가장 많이 편성되었고 그 다음으로 월·화에 편성되었다. 미니시리즈의 경우 30~40대 여성이 주 시청층으로 나타나고 있다[15].

표 1. 2000년대 전문직 소재 드라마 편성 현황(지상파 기준)

	KBS	MBC	SBS
2000		이브의 모든 것(아나운서)	메디컬 센터(의사)
2001		호텔리어(호텔리어)	
2002		리멤버(검사)	라이벌(골퍼)
2003	보디가드(경호원)		때려(복서)
2004			매직(마술사)
2005		변호사들(변호사), 달콤한스파이(경찰), 내 이름은 김삼순(파티쉐)	패션70s(패션디자이너), 온리유(요리사)
2006		오버더 레인보우(가수), 진짜 진짜 좋아해(청와대 요리사, 경호원)	불량가족(대행업자)
2007	일단뛰어(경찰)	히트(수사관), 마왕(수사관), 커피프린스1호점(바리스타), 뉴하트(흉부외과의사), 개와 늑대의 시간(국가정보원요원), 하얀거탑(의사), 에어시티(공항, 국정원 요원)	외과의사 봉달희(외과의사), 찢은 전쟁(대부업자), 로비스트(로비스트)
2008	그들이 사는 세상(드라마), 강적들(청와대 경호원)	밤이면 밤마다(고교학), 베토벤 바이러스(클래식), 종합병원2(의사), 스포트라이트(기자), 대한민국변호사(변호사), 내여자(조선업자)	식객(요리사), 테루아(소물리에), 온에어(방송), 신의저울(변호사)
2009	결혼 못하는 남자(건축가), 파트너(변호사), 열혈장사꾼(카달리)	신 데렐라맨(의류업자), 트리플(피겨선수)	드림 (이종격투기선수), 카인과 아벨(의사), 스타일(패션잡지기자)
2010	국가가 부른다(경찰, 정보국요원), 신데렐라언니(양조업자), 제빵왕김탁구(제빵사)	파스타(파스타 요리사), 개인의 취향(가구디자이너, 건축설계사, 런닝, 구(마라토너))	산부인과(의사), 검사 프린세스(검사)

3. 시청률과 마니아

드라마의 시청률이라는 것은 매우 복잡한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는 결과물이다. 또 많은 자본과 인력으로 작품성을 인정받는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방송의 속성상 경쟁 드라마의 편성에도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16]. 게다가 시청률은 개별 드라마의 성적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전문직 드라마 전체의 특성을 추출해 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 직업에서의 삶과 성공을 중심으로 한 서사구조를 가진 전문직 드라마는 시청률에서 특징적인 현상을 보였다.

우선 KBS의 경우 전문직 드라마의 편성이 제일 적기도 하지만 시청률 성과도 가장 저조하게 나타났다. MBC의 경우를 보면 지상파 3사 중 전문직 드라마를 가장 많이 편성했는데 「하얀거탑」, 「베토벤 바이러스」, 「파스타」가 시청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대표적인 작품에 속한다. 특히 「하얀거탑」과 「베토벤 바이러스」의 경우 열성 시청자들이 마니아 집단을 형성하여 인터넷에서 열띤 활동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드라마의 평균 가구시청률은 20%대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전문직 드라마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채널은 SBS로 「식객」, 「온에어」, 「스타일」이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객」와 「온에어」의 평균 가구시청률도 겨우 20%를 상회하였고 「스타일」은 17.9%를 기록했다. 0 [표 2]와 같이 주요 전문직 드라마 11편 중 9편이 20%를 넘기지 못했다.

표 2. 주요 전문직 드라마의 시청률

채널	프로그램	가구평균 시청률(%)	최고시청률(%)
KBS2	일단뛰어	5.0	13.3
	그들이 사는 세상	6.3	12.5
	열혈장사꾼	9.2	17.5
	파트너	10.0	19
MBC	에어시티	12.1	21.2
	베토벤바이러스	18.5	32.4
	스포츠라이트	11.5	21.5
SBS	파스타	18.6	27.4
	온에어	20.3	31.5
	식객	20.8	34.7
	스타일	17.9	27.7
평균		13.65	18.54

최고 시청률을 보아도 「베토벤 바이러스」가 32.4%,

「식객」과 「온에어」가 각각 34.7%와 31.5%를 기록하였을 뿐 나머지 8편은 30% 미만에 머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전통적으로 사극, 가족, 멜로 장르에서 성공한 드라마의 경우 최고 시청률이 50%를 상회하기도 한다.

보통 방송사에서는 평균 가구시청률이 20%를 넘기면 성공 드라마로 간주하는 편인데[17] 주요 전문직 드라마 중 이 수준에 도달한 드라마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역사, 가족, 멜로 장르가 주류 최고의 시청률 기록해 왔는데, 이 장르들에서 성공한 드라마의 평균 가구시청률은 약 30~40% 수준까지 올라간다[18]. 또 2005~2009년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드라마의 평균 가구시청률은 14.2%이고 역사와 가정을 다룬 드라마는 각각 16.9%와 16.5%인데[19], [표 2]와 같이 전문직 드라마는 13.65%로 이 전체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몇몇 전문직 드라마는 마니아층을 불러올 만큼 특정 시청층에게는 강력한 매력을 구가하지만 역사, 가족, 멜로 장르가 때때로 보여주는 고시청률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전체 평균에도 못 미치는 시청률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시청률의 한계가 2008년 이후 전문직 드라마를 줄어든게 한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20].

III. 전문직 드라마의 내적 특성

1. 소재의 사회성과 다양성

2000년 대 전문직 드라마의 중요한 특징은 소재로 활용된 전문직종이 매우 세분화되고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기존 전문직 소재의 드라마에서는 형사, 의료인, 법조인이 자주 등장하였다. 하지만 2000~2006년을 보면 아나운서(MBC 「이브의 모든 것」), 골프 선수(SBS 「라이벌」), 경호원(KBS 「보디가드」), 복싱 선수(SBS 「때려」), 파티쉐(MBC 「내이름은 김삼순」), 패션 디자이너(SBS 「패션」), 요리사(SBS 「온리 유」) 등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다양한 전문직종이 새롭게 소재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MBC의 「이브의 모든 것」(2000)과 SBS의 「메디컬센터」(2000)를 제외하면 전문직이라는 것이 기존의 전통적인

멜로드라마에 신선함을 첨가하는 차원에 머물 뿐 직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묘사가 부족하다.

반면 2007년 이후에는 주인공의 전문직이 매우 구체적이고 직업활동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가 두드러진다. MBC 「하얀거탑」은 구체적으로 외과병동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수술 장면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본격적인 전문직 드라마라는 평가를 받았다. 사실 의학 드라마가 전혀 생소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현상은 의학 내에서 전공이 매우 세부적으로 제시되고 실제 환자의 질병, 시술행위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흉부외과를 다룬 「뉴하트」(MBC, 2007), 외과를 다룬 「외과의사 봉달희」(SBS, 2007), 「산부인과」(SBS, 2010)도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한편 미국 드라마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의학이나 수사 드라마에 비해 법정 드라마가 희소한데, 「신의 저울」(SBS, 2008)과 「파트너」(MBC, 2009)가 법정 전문직 드라마로 등장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또 2007년 이후에는 기존에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직종을 소재로 한 전문직 드라마가 다양하게 쏟아졌다. 공항 보안을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을 다룬 「에어시티」(MBC, 2007), 드라마 PD에 대한 「그들이 사는 세상」(KBS, 2008), 보도국 기자에 대한 「스포츠라이프」(MBC, 2008), 고고학 전문직을 다룬 「밤이면 밤마다」(MBC 2008), 클래식 오케스트라에 대한 「베토벤 바이러스」, 한식 요리를 다룬 「식객」(SBS, 2008), 와인에 대한 「떼루아」(SBS, 2008), 자동차 딜러에 대한 「열혈 장사꾼」(KBS, 2009), 의류업을 다룬 「신데렐라 맨」(MBC 2009), 패션잡지를 다룬 「스타일」(SBS 2009), 파스타를 소재로 한 「파스타」(MBC, 2010), 그리고 제빵을 소재로 한 「제빵왕 김탁구」(KBS, 2010)까지 매우 다양하다. 물론 작품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전에는 전문직을 작품의 새로운 요소를 포장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면 최근 2007년과 2008년에 방송된 다수의 드라마는 전문직 종사자의 도전, 모험, 실패, 성공 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과 전문직에 대한 세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의 지적 욕구에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소재 면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요리, 방송/연예, 스포

츠에 관련된 직업군을 다루는 드라마의 증가세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이 현상은 이 직종의 사회적 위상이 상승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보디가드, 고고학자, 대부업자, 로비스트 등과 같은 특이한 직업 소재는 친숙성 보다는 이색적 성격에 호소하여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서사구조: 멜로와 전문직 사이에서

소재의 변화는 서사구조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이전에는 대다수의 전문직 소재 드라마가 멜로 중심의 드라마였다. 반면 2007년에는 전문직 드라마의 양적 성장과 함께 멜로가 아닌 직업생활의 이야기(경쟁, 성공, 실패 등)가 서사를 이끌어가는 드라마가 대거 등장하였다.

하지만 2008년에는 직업과 멜로를 적절하게 혼합한 드라마가 전 해에 비해 확연하게 늘어났다. 이러한 경향은 방송사 중에게 2007년 전문직 드라마를 가장 많이 방송한 MBC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2007년 「하얀거탑」, 「뉴하트」, 「에어시티」, 「히트」와 같은 본격적인 전문직 드라마들이 주목을 받았으나 전반적으로 시청률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점이 한 가지 이유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에어시티」의 평균 시청률은 12.1%였고 「히트」는 15.8%를 기록했으며, 만니아와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하얀거탑」 역시 10% 중반에 머물렀다. 반면 멜로와 전문직을 적절하게 배합한 드라마는 상대적으로 좋은 시청률 성과를 보였다. 그 예로 「뉴하트」와 「커피프린스 1호점」의 평균 시청률은 모두 20%를 상회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직업에 대한 이야기 중심의 본격적인 전문직 드라마의 성적이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멜로로부터의 홀로서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2007년의 결과는 2008년의 편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09년과 2010년에는 직업 중심의 전문직 드라마는 확연하게 줄어든 반면 멜로 중심의 전문직 드라마가 두드러지게 늘어났다. 특히 전문직 드라마에 집중하던 MBC가 이 시기에는 전문직과 멜로를 혼합한 「파스타」 외에는 어떠한 전문직 드라마도 방송하지 않았다. 물론 전문직 드라마가 완전히 전문 직종에 대

한 이야기에만 집중될 필요는 없으며 복합적인 서사구조에서 전문직 이야기와 사랑 이야기를 적절하게 혼합할 수도 있다. 이것이 시청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제작진에게 하나의 전략적 선택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전문직 드라마의 중심 서사구조(직업/멜로)

년도	방송사	직업 중심	직업+멜로	멜로 중심
2000~2006	KBS			보디가드
	MBC		이브의 모든 것 리멤버	호텔리어, 때려, 매직, 변호사들, 달콤한 스파이, 내이름은 김삼순, 오버더레인보우, 진짜진짜 좋아해
	SBS	메디컬센터		라이벌 패션 70s, 온라인 불량가족
2007	KBS	일단뛰어		
	MBC	하얀거탑 에어시티 히트	뉴하트, 개와늑대의 시간, 마왕	커피프린스1호점
	SBS	외과의사 봉달희, 찢의 전쟁		로비스트
2008	KBS	강적들	그들이사는세상	
	MBC	베토벤바이러스, 종합병원2, 스포트라이트	내 여자 밤이면 밤마다	대한민국 변호사
	SBS	식객	온에어 신의 저울	떼루아
2009	KBS1/2	열혈장사꾼	파트너	결혼 못하는 남자
	MBC			신데렐라 맨 트리플
	SBS	스타일	드림	카인과 아벨
2010	KBS		제빵왕 김탁구 신데렐라 언니	국가가 부른다
	MBC		파스타	개인의 취향 런닝, 구
	SBS	산부인과		검사 프린세스

3. '전문직 슈퍼맨' 캐릭터

전문직 드라마를 특징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전문직 “슈퍼맨(superman)” 캐릭터이다. 여기서 슈퍼맨은 에코(Eco)가 ‘초인’의 의미로 사용한 개념인 슈퍼(super)+맨(man)을 말한다[21]. 슈퍼맨은 대중을 위한 모델로서 제작된 ‘대중의 슈퍼맨’이자 시리즈화라는 현대 대중매체의 상업화 방식에 적합한 모델을 의미한다. TV 드라마의 이야기는 사건을 통해 위기나 모순의 표출로 진행된다. 대중은 이러한 위기나 모순을 해결할 힘이나 권력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회적 모순이나 위기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인물이 필요하다. 이 인물이 해결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능력

이나 카리스마를 가져야 하는데 여기서 바로 슈퍼맨이 탄생하게 된다. 결국 드라마의 슈퍼맨은 치유와 위안을 갈구하는 대중의 욕구와 대중매체의 상업화 방식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전문직 드라마 속 주인공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처럼 초능력을 지니고 있는 정의를 수호하고 악과 싸우는 그러한 인물은 아니다. 전문직 드라마의 주인공은 그들에 비하면 오히려 평범한 사람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문직 슈퍼맨'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전문직 드라마의 주인공은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전문직종 중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자 동시에 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이거나 이러한 전문가로 변신하는 인물이다. 그가 전문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가로서 자질을 발휘하면서 전문직을 동경하는 현대인에게 전문가로서의 슈퍼맨이라는 위상을 확보한다. 이러한 캐릭터의 창조는 전문직 드라마의 서사구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주인공이 전문 분야에서 성공하는 과정동안 벌어지는 수많은 시련과 사건은 이야기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캐릭터가 창조된다는 것이다.

둘째, 전문직 드라마의 주인공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재능을 선천적으로 부여 받은 경우가 많다. 특정 분야에서 최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베토벤 바이러스」의 강건우와 「제빵왕 김탁구」의 김탁구는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선천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재능은 주로 그 분야의 대가에 의해 발견되고 인정을 받으며 발전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특별한 재능이 주인공이 한 전문 분야에서 정상에 오르게 만드는 서사구조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현실을 초월하고자 하는 시청자의 욕구에 응답하는 것이다.

셋째, 전문직 드라마의 슈퍼맨은 이중성을 지닌다.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강건우는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통순경이고, 「파스타」의 서유경도 평범한 중국집 딸이고 파스타 요리의 초보일 뿐이다. 이들은 평소 자신의 특별한 재능을 감추고 있으며 때로는 평범한 사람, 때로는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 이중성은 이야기 속에서 모험담과 반전 그리고 긴장감을 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일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과 시청자 간의 거리를 좁혀 동일시를 가능하게 해 준다[22].

이처럼 전문직 드라마의 '전문직 슈퍼맨'은 분업화와 전문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한 면을 잘 반영하고 있다.

IV.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2000년대 전문직 드라마의 발전양상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요약해 보면, 우선 2000년대 후반기에 진입하면서 직업의 전문화와 전문직 선호라는 사회문화적 현상을 반영하듯 지상과 방송은 전문직 드라마를 대거 편성하기 시작하였다. 일부 전문직 드라마는 성공적인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마니아층을 형성할 정도로 흥행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전문직 드라마의 전반적인 시청률은 낮게 나타났으며 그 중 나름 좋은 성적을 보인 드라마도 사극 혹은 멜로 장르만큼의 고시청률을 기록하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노출하였다. 오히려 직업 직 소재와 멜로를 적절하게 혼합한 드라마가 좋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전문직 소재에만 집중하면 다양하고 폭넓은 시청층을 포섭하기 힘들 수 있다는 점과 멜로와 같이 감정적이고 보다 보편적인 정서를 다루는 요소의 가미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전문직 드라마의 내적 특성은 크게 세 가지 지표에서 분석되었다. 첫째, 2000년대 후반기부터 전문직 소재가 매우 다양해졌고 직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매우 세부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텍스트적 특성은 드라마의 현실효과를 높이고 시청자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둘째, 전문직 소재는 전문직업의 삶과 성공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의 창작에 활용되면서, 기존의 멜로 중심 서사구조에서 직업 중심 서사구조로 유인하는 중요한 동인이 되고 있다. 특히 2007-2008년에는 직업 중심의 전문직 드라마가 집중 편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9년부터는 다시 멜로 중심의 서사구조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셋째, 서사구조의 특징과 맞물려 전문직 드라마만의 고유한 캐릭터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직 드라마의 주인공은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하는 현대적 성공 신화를 보여주면서, 전문인으로서의 성공을 갈구하는 현대인의 욕구에 부응한다.

국내에서 전문직 드라마가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지만, 2000년대 후반기의 다양한 시도는 국내 드라마 제작산업의 새로운 창조적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직 드라마는 직업에 대한 세부지식과 긴 사전 조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전 제작이 드물고 제작 일정이 빠듯한 국내 제작 환경에서 쉽지 않은 장르이다. 하지만 전문 작가의 발굴과 양성 그리고 사전 제작제의 확대를 통해 향후 새로운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1] F. Jost, *Introduction à l'analyse de la télévision*, Ellipses, 1999.
 [2] 윤호진, *디지털시대 TV드라마의 위상과 전망: 한류에서 HD까지*, 한국방송영상진흥원, 2005.
 [3] 최원석, "기형적 제작비 구조 무너지는 드라마 제작 시스템", *방송문화*, 제321호, pp.2-11, 2008.
 [4] 황인성, "'트렌디 드라마'의 서사구조적 특징과 텍스트의 즐거움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언론학보*, 제43권, 제5호, pp.221-248, 1999.
 [5] 유진희, "김수현 홈드라마의 장르문법과 젠더 이데올로기 <엄마가 빨랐다>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11호, pp.102-112 2010.
 [6] 신주진, *29인의 드라마 작가를 말한다*, 밈, 2009.
 [7] 조민준, "트렌디 멜로에 대한 반작용 시청률 확보가 현실적 제약-전문직 드라마의 성공과 딜레마", *신문과 방송*, pp.116-119, 2008(11).
 [8] <http://mediaus.tistory.com/131>
 [9] 정영희,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의 동시대 지형과 역사성", *한국언론학보*, 제53권, 제1호, pp.84-108, 2009.
 [10] 서상국, "수용소 문학: 장르화와 그 특성", *슬라브학보*, 제12권, 제2호, pp.1-20, 1999.

[11] U. Eco, "Innovation et répétition : entre esthétique moderne et post-moderne," *Réseaux*, No.68, pp.9-26, 1994.
 [12] 정영희, 앞의 글.
 [13] H. R. Jauss, *Pour une esthétique de la réception*, Gallimard, 1978.
 [14] 이영미, "전문직 드라마의 불시착과 새로운 경향", *황해문화*, 제66권, pp.304-317, 2010.
 [15] MBC시청자연구소, *드라마 성공 모델 분석-최근 5년간의 방송 3사 드라마를 중심으로*, MBC, 2006.
 [16] 권호영, 박웅진, 윤석진, 김숙, *드라마 성공 요인 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17] MBC시청자 연구소, 앞의 글.
 [18] 박덕춘, "TV 드라마의 내용상의 장르와 영상표현기법의 상관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10호, pp.159-167, 2009.
 [19] 권호영, 박웅진, 윤석진, 김숙, 앞의 책.
 [20] 이영미, 앞의 글.
 [21] 움베르토 에코, 김운찬 역, *대중문화의 이데올로기*, 열린책들, 1994.
 [22] 움베르토 에코, 윤종태 역, *매스컴과 미학*, 열린책들, 2009.

저 자 소개

이 원(Won Lee)

정희원



- 1999년 2월 : 성균관대학교 불어 불문학과(문학사)
 - 2001년 9월 : 보르도 3 대학교 정보·커뮤니케이션학 대학원(석사)
 - 2006년 6월 : 보르도 3 대학교 정보·커뮤니케이션학 대학원(박사)
 - 2007년 1월 ~ 2010년 2월 : MBC 전문연구위원
 - 2010년 5월 ~ 2011년 2월 : 한국콘텐츠진흥원 책임 연구원
 - 2011년 3월 ~ 현재 : 인천가톨릭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TV 드라마, 저작권, 콘텐츠 산업 및 정책